

근대 중국 혁명과 잡지 《覺民》에 게재된 소설·희곡의 현실인식 연구

趙得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현실인식 분석
 - 2.1 시국위기에 대한 견해와 계몽
 - 2.2 反滿革命의 주장
 - 2.3 관리 비판
 - 2.4 서양에 대한 인식
3.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근대 중국의 혁명과 잡지 《覺民》은 근대 중국의 혁명과 문학단체인 南社의 주요 발기인 중 한 명인 高旭과 그의 동생 高增, 그의 삼촌 高燮, 세 사람이 발기하고 창립한 覺民社에서 발간한 잡지이다. 覺民社가 구체적으로 언제 창립되었고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리고 언제 해산되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覺民》은 1903년 11월에 현재의 上海에서 창간되었고 1904년 8월까지 월간으로 발간되어 총 10기가 발행되었다. 1903년은 중국 사상계의 대전환이 있었던 해로, 혁명사조가 개량주의를 대신하여 전면에 나섰던 해였다.¹⁾ 이러한 시대적 사조를 반영하였던 《覺民》은 清朝를 반대하고 열강에

* 협성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리쩌허우 지음, 임춘성 옮김, 《중국근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년, 487쪽 참조.

반대하며, 사회개혁과 反滿革命을 주장하고, 민주를 고취하였는데, 당시 혁명파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리고 高旭을 비롯한 발기인 3인과 《覺民》에 기고하였던 많은 저자들이 후에 대부분 南社의 성원이 되었기에, 이 잡지는 《南社叢書》로서 정리되어 단행본으로 1996년에 발간되었다. 그러므로 《覺民》을 통해 辛亥革命 이전, 구체적으로는 1903년과 1904년 사이의 혁명파의 현실 인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이러한 고찰은 혁명파인 南社 성원들의 南社 성립 이전의 현실 인식에 대한 고찰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覺民》에 실려 있는 글들의 유형은 논설, 哲理, 교육, 역사, 군사, 학설, 연설, 政法, 청년사조, 傳記, 위생, 혼인제도, 소설 및 희곡, 시국, 시사, 시평 등으로 아주 다채롭다. 그 중 본 논문에서는 《覺民》 발간 당시 계몽과 구국의 도구로서 크게 각광받았던 소설과 희곡을 대상으로 하여,²⁾ 소설과 희곡에 드러나는 당시 현실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여,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³⁾ 이러한 고찰을 통해 문학을 도구화시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선양한 근대 중국의 혁명파와 근대 중국의 혁명파 문학단체인 南社의 맹아시기의 현실 인식을 파악하여 근대 중국 혁명파의 근대 기획에 대한 연구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2) 이보경은 이 시기의 소설이 '상상의 공동체' 건설을 위한 방법이 된 이유를 "서구 근대문명의 우수성에 대한 부정할 수 없음, 그리고 그것을 중국의 문화적 전통과 融滙하게끔 하는 새로운 그릇의 창안의 요구 속에서 '소설'이 선택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희곡 또한 같은 인식의 지평에서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보경, 《20세기 초 중국의 소설이론 재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년, 2쪽 참조.

3) 《覺民》에 게재된 소설과 희곡은 모두 7편이다. 소설은 <獅子吼>, <黃金世界> 등 2편이며, 희곡은 <俠客傳奇>, <女英雄傳奇>, <迷魂陣傳奇>, <人天恨傳奇>, <邯鄲夢傳奇> 등 5편이다.

2. 현실인식 분석

2.1 시국위기에 대한 견해와 계몽

戊戌變法으로 인해 청조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보수파와 갈등을 겪던 1898년과 1899년 사이 열강은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를 자행한다. 독일은 山東省 靑島를 점령하고 근교의 광산채굴권과 철도부설권을 요구했으며, 영국은 山東省 威海 부근의 항구를 점령하고, 홍콩 북쪽 땅을 90년간 조차하겠다고 하였고, 러시아는 만주 지역에 세력권을 넓힐 목적으로 旅順을 차지하였으며, 프랑스는 雲南·廣西·廣東의 접경지인 통킹(Tongking)과 海南島에서 이권을 주장하였고, 일본은 조선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⁴⁾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망국의 위기를 느낀 당시 중국인들은 열강에 의해 위와 같이 중국이 분할 당하자, 이전의 위기감을 넘어 중국이 산산이 쪼개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다. 이어 1899년 義和團 사건이 발발하고 열강에 의해 의화단 사건이 종결되고 1901년 辛丑條約을 통해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자주권을 상실하게 되자 중국인들은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소설 <獅子吼>와 희곡 <俠客傳奇>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후에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국가가 각기 모두 숲속을 나온 호랑이로, 어금니를 드러내고 발톱을 휘두르며, 돌진하여 덮쳐 와서는, 천년간 혼취되어 있던 잠자는 사자를 마음대로 물어, 선혈이 낭자하게 하였다.”⁵⁾

4)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중국을 찾아서 1》, 이산, 1998년, 278쪽 참조.

“이 잠자는 사자는 여전히 코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지만, 머리를 떨구고, 꼬리를 낮추고, 이 아시아의 동쪽 대륙에 드러누워, 몸이 차가운 채로, 실낱같은 숨만 쉬고 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⁶⁾

“그들(인용자 주: 열강)이 마음대로 콩을 쪼개고 박을 나뉘, 용의 기는 참담하게 되고, 호랑이의 기운은 사그라지게 되었네. 천고의 가슴 아픈 말은, 신명스러운 자 손들이 소와 말이 되어, 유태인처럼 영원히 돌아갈 곳이 없어, 들판을 불태워도, 갈 데가 없게 된 거라네.”⁷⁾

소설 <獅子吼>에서는 중국을 잠자는 사자로 비유하고 열강들을 호랑이로 비유하며 호랑이가 숲에서 나와 정신없이 자고 있는 사자를 공격하여 사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잠자는 사자는 실낱같은 숨만 쉬고 있는 거의 빈사의 상태임을 또한 말함으로써 열강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진 중국을 비유하고 중국의 무력함을 애통해 하고 있다. 희곡 <俠客傳奇>도 마찬가지로 열강에 의해 중국이 나뉘어져 결국에는 유태인의 경우처럼 나라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열강들이 중국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지만,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뿐이었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열강에 굴복하고 아부를 하였다. 이러한 ‘崇洋’ 혹은 ‘畏洋’ 현상은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경우도 있었다. 소설 <獅子吼>에서 서양인에게 굽실거리는 사람에게 대해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 “後來見甚麼俄羅斯、法蘭西、英吉利、德意志、意大利、日本等國個個都是出林之虎，張牙伸爪，撲將過來，將千年昏醉的睡獅亂咬，弄得個鮮血直淋。”，吳魂 著，<獅子吼>，《覺民》(제 1-5기 합본)，여기에서는 《南社叢書·<覺民>月刊整理重排本》，高旭·高燮·高增 原編，高鈞·谷文娟 整理，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6년，63쪽 所收에 依함. 이하 소설 및 희곡의 인용문은 모두 《南社叢書·<覺民>月刊整理重排本》의 所收에 依함.

6) “這睡獅仍舊鼻息如雷鳴一般，垂着頭，低着尾，躺着這亞東大陸，身子冰冷，氣息止存一線，死不死，活不活。”，吳魂 著，<獅子吼>，같은 책，63쪽.

7) “任他剖豆分瓜，龍旗慘愴，虎氣消沈，千古傷心話，神明苗裔供牛馬，一般猶太永無家，燎原成，無及也。”，大雄 著，<俠客傳奇>，《覺民》(제 1-5기 합본)，《南社叢書·<覺民>月刊整理重排本》，60쪽.

“당시에 趙鐵牛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 연합군이 北京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입으로 서양어르신, 서양어르신 하고 소리치며 하루 종일 머리를 조아렸지. 친구가 그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 ‘자네는 수십 년 동안 헛공부를 했군. 단사호장으로 군대를 대접하고, 제왕의 군대를 영접한다는 그런 큰 도리를 모르지는 않겠지?’”⁸⁾

이렇게 말한 주인공은 趙鐵牛라는 자가 너무나도 미운 나머지 “이 자의 가족을 깔아서 자고, 이 자의 고기를 먹을 수 없음을 한한다.”⁹⁾라고 말하며, ‘崇洋’의식에 젖은 자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외환이 드센 상태에서 清朝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義和團의 난을 피해 西安에 갔던 西太后는 北京에 돌아와서도 망국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에 깊이 빠져 있었고 궁전을 증축하여,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가중되어, 국민들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소설 <獅子吼>를 보면

“보라 천한 오랑캐가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음란하게 놀고 즐기는 데 쓰네. 頤和園은 阿房宮보다 더 잘 만들어졌네. 西太后는 사람의 욕심을 끝까지 하여 근심 걱정 없네. 정말 안으로는 색에 빠지고 밖으로는 사냥에 빠진 것과 같네. 내정을 말하면 병사를 길렀지만, 집안의 도적만을 막을 뿐이고, 외교를 논하자면 서양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어 득의양양하게 할 뿐이다. 지금 정부가 매국을 달게 여기고 우리 동포들이 유태인처럼 고향이 없어질까 두렵고 두렵구나. 보라 저 동삼성은 이미 우리 손에서 벗어났고, 나머지 몇 개 성은 토지가 할양되고 강역이 나뉘었다.”¹¹⁾

-
- 8) “俺記得當時有個人名叫趙鐵牛，他最喜拍別人的馬屁。聯軍入京時，他曾屈膝馬前，口呼洋大人，小人叩頭一日，友人問他何忽作此狀？他對道：你枉讀幾十年書，難道還不知箠食壺漿、以迎王師是個大道理麼？”，吳魂 저, <獅子吼>, 같은 책, 64쪽.
- 9) “恨不能寢他的皮，食他的肉”，吳魂 저, <獅子吼>, 같은 책, 64쪽.
- 10) 구양근, 《청말 건책소설의 史實關係 연구》,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88년, 103쪽 참조.
- 11) “看賤虜刻民財充他淫樂，頤和園修理得迭過阿房。老佛爺窮人欲無憂無慮，眞算得內色荒外作禽荒。論內政養兵丁但防家賊，論外交宴洋人得意揚揚。怕只怕現政府甘心賣國，俺同胞爲猶太

라 하며, 청정부의 부패와 무능, 西太后的 사치로 인해 나라가 열강에 의해 침탈당하고 국민들이 오갈 데 없는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고 있다.

시대배경이 宋末인 희곡 <女英雄傳奇>는 梁紅玉이라는 ‘抗金’ 여영웅을 등장시켜 열강을 金나라에 빚대어 국가의 위기를 이야기 하고 있다.

“남편이시여, 지금의 정세를 볼작시면, 급박하여 현 상태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아둔한 군주는 북벌의 마음은 없고, 간사한 재상은 보검의 자루를 잡고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¹²⁾

희곡 <女英雄傳奇>에서는 이처럼 열강에 의해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만을 위하는 통치자의 행태와 그 통치자 밑에 있는 권력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소설 <獅子吼>는 주인공이 이러한 내우외환의 시대적 상황에 상심하고 또한 그냥 그대로 참고만 있을 수 없어, 과거를 치르려고 공부하던 팔고문을 던져 버리고 관리의 길을 포기하고 국가대사를 위한 길로 나아감을 묘사하고 있다.

“내가 보니 너무나 상심하여, 모발이 곤두서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전의 어리석은 생각은 순식간에 저 하늘로 던져버렸다. 이전의 사고를 크게 일변시켜, 이전의 팔고문을 불에 태워버리고, 실제적인 학문을 배우기로 뜻을 세우고, 관리의 길을 버리고, 국가의 대사에 약간의 뜻을 두기로 하였다. 하하하, 난 이전에는 냉혈동물이었지만, 지금은 피 끓는 사람으로 변했다.”¹³⁾

이렇게 국가를 위해 나선 주인공은 자세히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희곡 <俠客傳奇>의 주인공이 말한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지만, 뜻은 꺾을 수 없

沒了家鄉。看看那東三省已經送脫，餘幾省那個不割土分疆。”，吳魂 著，<獅子吼>，같은 책，65쪽.

12) “丈夫啊，你看方今大局，急不可支。昏君無北伐之心，奸相操太阿之柄。”，覺佛 著，<女英雄傳奇>，《覺民》(제1-5기 합본)，《南社叢書·<覺民>月刊整理重排本》，62쪽.

13) “俺看來甚是傷心，毛髮就豎起來了，眼淚就流出來了。前日的痴念頭頃刻就拋向九霄雲裏去了。因大變從前性質，將昔年的八股文章付之一炬。立志講求實學，絕意宦途，於國家大事，略爲留意。哈哈，俺昔日也是個冷血動物，到如今變成一個熱血人了。”，吳魂 著，<獅子吼>，같은 책，63쪽.

다.”¹⁴⁾라는 맹세에 보이는 것처럼 생명을 돌보지 않고 혁명의 길로 나아갔을 것이다. 혁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그들은 내우외환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의 각성을 맹렬히 촉구한다.

“.....옛 산하를 되찾으려면, 먼저 노예근성을 없애야 한다.....날마다 연설하여 우리 동포 각자가 맹렬히 각성한다면 이 □□(인용자 주: 아마도 만주족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 같음)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¹⁵⁾

위 예문에서 “노예근성을 없애야 한다.”라는 말은 당시 梁啓超의 국민성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梁啓超는 국민성의 최대 病根을 ‘노예성’이라고 견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의 수천 년 동안의 부패로 인한, 그 화가 오늘에 극심하다. 그것의 원인을 살펴보니, 모두가 노예성으로 부터 온 것이다. 이 성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로 세계 만국 사이에 설 수 없다.”¹⁶⁾

당시 사람들은 봉건통치에 순응하고 반항하지 않는 사람을 노예라고 불렀고, 봉건통치와 제국주의자의 박해를 참고 견디는 사람을 노예의 노예라고 불렀고, 제국주의자에게 비굴거리고 아첨하는 청조 통치자들을 노예라 불렀다.¹⁷⁾ 희곡 <邯鄲夢傳奇>의 작가도 梁啓超의 국민성 비판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梁啓超의 생각처럼 노예근성을 없애고 각성하여 反滿을 통해 혁명을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국민성의 비판과 국민에 대한 각성에 있어서는 혁명과 역시 개량파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 “我頭可斷, 志不可撓.”, 大雄 著, <俠客傳奇>, 같은 책, 61쪽.

15) “.....欲復舊山河, 先斬奴根性.....天天演說, 使我同胞各自猛省, 方可殺盡這□□也.....”, 鐵郎 著, <邯鄲夢傳奇>, 《覺民》(제9-10기 합본), 《南社叢書·<覺民>月刊整理重排本》, 226쪽.

16) “中國數千年之腐敗, 其禍極於今日, 推其大原, 皆必自奴隸性來, 不除此性, 中國萬不能立於世界萬國之間.”, 梁啓超, <致康有爲書>, 李華興·吳嘉勛 編, 《梁啓超選集》, 上海中人民出版社, 1984년, 136쪽.

17) 趙慎修, <論晚清的文學變革>, 《文學遺產》, 1989년 제2기, 46쪽 참조.

그리고 희곡 <邯鄲夢傳奇>에서 국민들의 각성을 위한 수단으로 연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당시 연설은 대중의 민지를 계발하는 계몽의 수단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지식인이 새롭게 갖추어야 할 학문 태도로 여겨져 왔다.¹⁸⁾

이처럼 《覺民》의 소설과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열강의 침입, 청정부의 부패로 인한 내우외환 속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반만을 통한 혁명의 길로 나아가며 국민들의 맹성을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 反滿革命의 주장

반만의식은 청말에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만주족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明의 유신들로부터 기원한다. 이들은 會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암중 활동하며 청조를 무너뜨리려고 하였는데, 사실상 태평천국의 난의 기원도 여기에 있으며, 孫文의 민족혁명사상의 시발점도 여기라고 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반만 의식은 청일전쟁, 의화단 사건,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점점 강화되어 갔고, 청조의 행태에 분노한 사람들은 반만의식에서 비롯하여 점점 혁명에 경도되어 갔다. 반만의식은 중국의 모든 재앙의 근원이 이민족인 만주족의 통치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인데,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혁신의 역량이 반만에 집중되었다.²⁰⁾

한편 청말의 반만의식은 反帝의식에 힘입어 조성되고 확대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청조가 의화단 사건의 배상문제로 말미암아 체결했던 굴욕적인 辛丑條約으로 인해 청조의 타도 없이는 열강을 물리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하여 반만의식과 반제의식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 발

18) 천진, 《20세기 초 중국의 智·德 담론과 ‘文’의 경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년 12월, 164쪽 참조.

19) 陳芳, 《晚清古典戲劇的歷史意義》, 臺灣學生書局, 1988년, 263-264쪽 참조.

20) 마루야마 마츠유키 저, 천성림 역, 《중국 근대의 혁명사상》, 예전사, 1989년, 93쪽 참조.

생한 拒俄운동(1901-1903)을 통해 반만의식과 반제의식은 보다 분명하게 결합하게 된다.²¹⁾ 당시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東三省에 출병한 뒤 1902년 청조와 철병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東三省을 세력권 안에 편입시키겠다고 청정부에 요구하였다.²²⁾ 1903년 4월 29일 이러한 러시아의 행태에 격분한 일본에 있던 중국유학생 500여명이 집회를 갖고 러시아에 대한 개전을 청정부에 요구하면서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 拒俄의용대를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하는 한편 주전을 촉구하였고 중국 국내 각지에도 그 호응을 요구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²³⁾ 그러나 이 운동이 많은 유학생들의 호응도 받았고 反淸의 종지를 내세우지 않았는데도, 청조는 이 운동을 “拒俄를 구실로 혁명을 꾀한다”고 보고 엄격히 탄압을 하였으며, 게다가 일본에도 이 운동의 단속을 요청하였다.²⁴⁾

청조의 이러한 탄압조치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는 拒俄에서 반만으로 바뀌고, 애국에서 혁명으로 바뀌게 된다.²⁵⁾ 吳樾은 <遺書>에서 “排外를 생각하면 反滿하지 않을 수 없고, 反滿하려면 먼저 혁명하지 않을 수 없다.”²⁶⁾라고 했는데, 즉 청조는 拒俄, 즉 반제를 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반제를 위해서는 청조의 타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당시 지식인들의 생각이었다.²⁷⁾

희곡 <迷魂陣傳奇>에서 拒俄의용대를 조직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지만, 청정부가 拒俄를 핑계로 혁명을 획책한다고 단속을 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東三省의 분쟁이 급박해지고, 달걀을 썬아놓은 것처럼 매우 위태로웠다. 우리 당의 동지들, 크게 격양하여, 의용대를 조직하고, 군국민으로 다시 태어났다. 淮河

21) 강진아,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창비, 2009년, 214쪽 참조.

22) 강진아, 같은 글, 같은 책, 214-215쪽 참조.

23) 김형중, <신해혁명의 전개>, 《강좌 중국사 VI》,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지식산업사, 1992년, 131-132쪽 참조.

24) 김형중, 같은 글, 같은 책, 132쪽 참조.

25) 리쩌허우 지음, 임춘성 옮김, 같은 책, 487쪽 참조.

26) 吳樾, <遺書>, 리쩌허우 지음, 임춘성 옮김, 같은 책, 487쪽에서의 재인용에 의함.

27) 강진아, 같은 글, 같은 책, 215쪽 참조.

북쪽에서 배수진을 치며, 함께 필사의 마음 품었네. 項羽가 배를 침몰시키고 결사의 각오를 한 것처럼, 공동의 원수를 물리치겠다는 마음 품었네. 보니 군인의 혼이 부활한 것처럼 생각되었고, 듣자니 생기가 여전히 있음이 다행이었네. 다만 일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이 한스러웠네. 높은 산은 막아서고, 北淸정부는 질시하며 원수로 대하였네. 서명하여 말했네. 拒俄는 명목이고, 실제로는 혁명이라고 하며. 다짜고짜로 누명을 씌워 역적으로 몰았네.”²⁸⁾

《覺民》에 실린 소설과 희곡에서 이러한 반만의식은 먼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만주족에 대한 비하적 표현에 보인다. ‘胡’로써 지칭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涼血動物’ 심지어 ‘丑虜’, ‘犬羊種’, ‘犬羊賤種’, ‘犬種羊種’ 등의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희곡 <邯鄲夢傳奇>, 희곡 <人天恨傳奇>, 희곡 <女英雄傳奇>에서는

“그래서 소생은 결의하여 동포를 규합하여, 이 □□□□(인용자 주: 만주족을 비하하는 ‘犬種羊種’ 등의 단어인 것 같음)을 한명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죽여, 우리 □□(인용자 주: 漢族인 것 같음)의 옛 영토를 회복하여, 우리 조상의 커다란 복수를 갚아야, 비로소 원하는 데로 되는 것이다.”²⁹⁾

“黃帝와 炎帝의 후예 숨이 막혀 오랫동안 혁혁대었네. 당당한 7척의 내가 적자생존하려면, 오랑캐의 머리를 참해야지, 발달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네.”³⁰⁾

“천자의 근심 없음이 죽이도록 밉네! 재상의 대책 없음이 죽이도록 밉네!”³¹⁾

라고 하며 ‘殺’, ‘斬’이라는 글자를 통해 반만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28) “自東三省風潮急激，累卵堪危。我黨同志，大爲激昂，組織義勇隊，脫胎軍國民。淮陽背水，同懷必死之心。項藉沈舟，各切同仇之志，見者謂兵魂復活，聞者賀生氣猶存。獨恨事不如人，高山見阻，北淸政府，側目相仇。僉曰名爲拒俄，實則革命，不由分說，竟冤枉人做反賊了。”吳魂，<迷魂陣傳奇>，《覺民》(제7기)，《南社叢書·<覺民>月刊整理重排本》，142쪽.

29) “是以小生決意糾集同胞，將這□□□□殺個片甲不留，復我□□故土，報我祖宗大仇，方才如願哩。”鐵郎 著，<邯鄲夢傳奇>，같은 책，226쪽.

30) “黃炎苗裔奄奄久消沈，自命堂堂七尺要爭存，斬樓蘭腦筋發達深深印。”秋士 著，<人天恨傳奇>，《覺民》(제8기)，《南社叢書·<覺民>月刊整理重排本》，180쪽.

31) “恨殺那天子無愁！恨殺那宰相無謀！”覺佛 著，<女英雄傳奇>，같은 책，62쪽.

또한 희곡 <俠客傳奇>와 희곡 <人天恨傳奇>는 이러한 만주족 정부를 목숨을 걸고 싸워 타도할 것을 주장한다.

“모두들 호랑이가 뛰쳐 오르고 용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용감히 싸우다 죽어 피로 오랑캐 조정을 물들인다 해도, 협기는 끝내 사라지지 않으리.”³²⁾

“안타깝게도 황인종은 이룬 것이 없고, 파랑새는 울며 날아가니, 감히 흥노를 내치고, 피로써 문명을 사 올 자 누구인지 묻고 싶네.”³³⁾

잡지 《覺民》이 발간되던 시기인 1903년 이후로 《蘇報》를 비롯한 많은 혁명과 잡지에 실린 글들이 만주족을 적대시하였고 清朝의 통치를 부정하였으며 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청조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혁명만이 중국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예의 노예가 된 漢族을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³⁴⁾

孫文은 1906년 《民報》 창간 1주년을 기념하여 행한 연설에서 반만 즉, 滿淸정부를 타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만주족을 내쫓는 측면에서 말하면, 민족혁명이요, 군주제를 전복시키는 측면에서 말하면, 정치혁명이다.”³⁵⁾ 라고 했는데, 반만은 민족혁명이자 정치혁명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 연설에서 孫文은 민족혁명이란 만주족을 모두 없애는 것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주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족을 해친 만주족을 미워할 뿐이라고 하였다.³⁶⁾

하지만 《覺民》에 게재된 희곡에서는 민족혁명에 대한 孫文의 견해와 달리

32) “大家虎跳龍拏，旗張戰死，血染胡廷，俠氣終難下.”，大雄 著，<俠客傳奇>，같은 책，61쪽.

33) “可惜那黃族無成，青鳥飛鳴，問誰人敢排斥匈奴，血購文明.”，秋士 著，<人天恨傳奇>，같은 책，180쪽.

34) 이영옥，<청말 만주족 지위하락과 반만정서>，<중국근현대사연구> 제39집，2008년，17-18쪽 참조.

35) “從驅除滿人那一面說，是民族革命；從顛覆君主政體那一面說，是政治革命”，孫文，<《民報》周年紀念大會上的演說>，丁守和 主編，<中國近代啓蒙思潮(上)>，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9년，398-399쪽 所收에 依함.

36) 孫文，같은 글，같은 책，398쪽 참조.

만주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을 넘어 위의 예에서 보이는 ‘한명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죽여’, ‘오랑캐의 머리를 참해야지’, ‘용감히 싸우다 죽어 피로 오랑캐 조정을 물들인다 해도’, ‘피로써 문명을 사올 자’처럼 만주족에 대한 강렬한 적대정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당시 대다수 혁명파의 견해이기도 하였다. 사실 민족이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³⁷⁾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단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에는 이질성의 제거라는 것이 불가피”³⁸⁾하여, 타자의 배제와 도태에 의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시기의 혁명파의 반만의식은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만주족을 없애야지 나라를 통합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覺民》에 게재된 희곡에서는 漢族의 우월성과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공공연히 드러나 협소한 민족주의 내지 종족주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3 관리 비판

문학이 관리를 견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은 《儒林外史》라고 할 수 있는데, 청말 문단에서 보이는 관리를 견책하는 문학들에서 보이는 강렬한 비판은 《儒林外史》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를 비판하는 문학 작품이 성행한 것은 청정부 관리의 극단적인 부패,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의 드높은 원성과 유관하며, 서양의 민권사조의 수입, 전제적인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인의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⁹⁾ 특히 당시 사람들의 관리에 대한 증오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통탄하고 관리들이 외국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찢찢매는 것을 통탄했으며, 관리들이 중

37)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년, 25쪽.

38) 이마무라 히토시 지음, 이수정 옮김, 《근대성의 구조》, 민음사, 1999년, 182쪽.

39) 陳平原, 《二十世紀中國小說史(第一卷)》(1897-1916年), 北京大學出版社, 1989년, 232쪽 참조.

국을 멸망의 지경으로 빠뜨리는 것을 통탄했다.⁴⁰⁾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관리를 견책한 또 다른 이유는 검열이 비교적 느슨하여, 당권자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있어도 생명을 잃을 염려가 없었으며, 어느 정도의 언론자유를 보장해 주던 조계 또한 존재했기 때문이었다.⁴¹⁾

1897년 孫文은 <中國的現在和未來>라는 글에서 “중국의 모든 재난은 단지 하나의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보편적이고도 체계적인 貪汚이다.”⁴²⁾ “이러한 貪汚는 아주 깊이 있게 전국에 퍼져 있다. 그래서 행정체계에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 국부적이고 순차적인 개혁은 희망이 없다.”⁴³⁾ 라 하며 관리들의 貪汚現狀을 강하게 질책하며 그것의 전복을 희망하였다.

청말시기 관리의 상황 및 각자가 부패를 저지르는 동기, 수단 등이 달랐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돈이었다.⁴⁴⁾ 그래서 그들은 국가정치나 민생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긁어모으는 데에만 정신을 두었다.⁴⁵⁾ 관리의 貪汚는 청말개혁실패와 청조멸망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청말시기 貪汚活動의 또 다른 특징은 재물로써 관직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역대 왕조에서 있었다. 청조의 경우는 康熙帝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때는 관직명만 주어질 뿐 실제로 관리가 될 수 없었다. 道光이후로는 관직명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리가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관매직의 풍조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⁴⁶⁾

《覺民》에 게재된 소설과 희곡에서는 돈으로 관직을 사는 것에 대한 직접

40) 阿英 저, 전인초 역, 《중국근대소설사》, 정음사, 1987년, 218쪽 참조.

41) 陳平原, 《二十世紀中國小說史(第一卷)》(1897-1916年), 233-234쪽 참조.

42) “中國所有一切的災難只有一個原因, 那就是普遍的又是有系統的貪汚”. 孫文의 이 문장은 원래 “Chinese Present and Future-the Reform Party’s plea for British Benevolent Neutrality”라는 제목으로 1897년 3월 1일에 《London Forthright Review》에 발표되었음. 《孫中山全集》(제1권), 廣東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室·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中華民國史研究室·中山大學歷史系孫中山研究室 합편, 中華書局, 1981년, 89쪽 所收에 의함.

43) “這種貪汚又是根深蒂固遍及於全國的, 所以除非在行政的體系中造成一個根本的改變, 局部的和逐步的改革都是無望的.”, 孫文, 같은 글, 같은 책, 95쪽.

44) 方正耀, 《晚清小說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1년, 120쪽 참조.

45) 方正耀, 같은 책, 120쪽 참조.

46) 郭延禮, 《中國近代文學發展史2》, 山東教育出版社, 1995년, 1192쪽 참조.

적 묘사는 없고, 연줄 등을 통하여 관리가 되고자 하는 장면이 나온다. 소설 <黃金世界>는 어떤 비정상적 수단을 통해 관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풍자하고 있다. 이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훈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엄격한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달아나 버리자, 관리가 되려고 시도를 한다. 그런데 과거를 쳐서 합격해서 관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연줄을 통해 관리가 되려고 한다.

“나는 지금 친분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 가서, 그에게 괜찮은 관직 하나 달라고 부탁하려 하네. 내가 그가 있는 곳으로 가면, 그는 반드시 두말없이 승낙할 거라네.”⁴⁷⁾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작가는 “청파리는 더러움을 쫓고, 개미떼는 용단에 달라붙네. 이름을 위하고 이익을 다투며, 앞장서려고 앞을 다투네.”⁴⁸⁾ 라며 비판하고 있다.

희곡 <邯鄲夢傳奇> 역시 비정상적 수단을 통해 관리가 되려고 하는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20년 동안 과거를 준비하던 이 인물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관리가 되고자 비정상적 수단을 이용하고자 한다.

“내 생각엔 공명이라는 두 글자는, 만약 정도로 나아간다면, 일시에 손에 넣기가 힘들 것이다. 달리 방도를 찾아, 세력있는 대관리를 찾아서, 그에게 빌붙어, 그에게 비위를 맞추는 게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말단관직이라도 무난할 것이다.”⁴⁹⁾

관리가 되고자 하는 그의 소망은 꿈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꿈 속에서 황제가 다음과 같은 조칙을 내리며 주인공에게 혁명가들을 처단하게 하고 관직을 부

47) “我今去尋個有交情有勢力的人，託他謀一個極好極肥的美缺，我到他這塊地方去，他一定滿口應承。”，懷舊子 著，<黃金世界>，《覺民》(제9-10기 합본)，《南社叢書·<覺民>月刊整理重排本》，222쪽.

48) “青蠅逐臭，群蟻附氈，爲名奪利，踊躍爭先。”，懷舊子 著，<黃金世界>，같은 책，222쪽.

49) “我想功名兩字，若要正途出身，一時倒難到手，不若想條門路，尋個有勢力的大官員，去依附他，奉承他。那時候一官半職，也就不難了。”，鐵郎 著，<邯鄲夢傳奇>，같은 책，224쪽.

여한다.

“.....지금 무뢰한 사대부들이 터무니없이 유언비어를 만들고, 혁명을 기도하고 있다. 각 독무들에게 엄격히 조사하라고 명령하고, 더불어 지방관에게 모두 나포하라고 하달하였다. 그대 侯志達은 경서와 사서에 능통하고, 삼강오륜을 깊이 알고, 올바르며 부패하지 않고, 힘써 그릇되고 간사한 말을 배척하여, 대단히 훌륭하고 존경스럽구나. 지금 그대에게 忠淸府使의 직을 제수하니, 즉시 부임하여라. 날 만나려고 서울에 올 것까지는 없다.....”⁵⁰⁾

주인공은 취임한 1년 동안 혁명가를 체포하고 처단한다.

“저번에 포졸들에게 혁명 반만하는 간사한 무리들, 淸을 없애고 漢을 중흥하자는 것들을 나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외국으로 도망쳐 버린 걸 생각지도 못했네. 오늘 아침 세 명을 잡아, 이미 조사하여 구두자백을 받았으니, 지금 이쯤에서 참수를 해야겠군.”⁵¹⁾

작가는 이 인물이 꿈속에서 관리가 되어 혁명가들을 처단하는 행위를 하다가 자신도 혁명당과 내통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을 통해 관리들과 청정부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주인공은 꿈속에서 깨어나 자신의 그동안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만주족을 깡그리 죽여 한족의 복수를 갚자고 하며 반만혁명을 주장한다.

희곡 <迷魂陣傳奇>는 처음에는 러시아의 만주침략에 항거하는 ‘拒俄’활동을 벌이다가 청조의 탄압에 그 활동을 멈추었다가 청조에 의해 舉人으로 발탁이 된 金可珍이 등장하여 혁명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보시요. 지금의 지사들은, 공화에 심취해 있고, 광복만을 원하고 있는데, 정말

50) “.....今有無賴士子，妄造謠言，希圖革命，除飭各督撫嚴查外，并諭地方官一律拿究。爾侯志達胸羅經史，透識綱常，守正不污，力排邪說，殊堪嘉尚。今授爾忠淸府之職，着即速赴任，無庸來京陛見。.....”，鐵郎 저，<邯鄲夢傳奇>，같은 책，224쪽.

51) “前日曾飭捕役密拿革命排滿奸徒，殺淸復漢等。誰知已逃遁外洋去了。今晨拿得三人，已將口供審確，不免就此砍了罷。”，鐵郎 저，<邯鄲夢傳奇>，같은 책，225쪽.

담력이 두둑하여 趙雲을 넘어서군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들은 올라가기만 할 뿐 물러설 줄을 모르니, 나방이 불 속으로 날아드는 것이며, 스스로 그물에 뛰어드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요.”⁵²⁾

이 말은 즉 혁명가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공화와 광복을 원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金可珍은 이어 지금 정부가 잘 대해주고 있으니, 혁명가들에게 순순히 귀순하라고 권유하고 회유한다. 이렇게 희곡이 종결된다. 이 희곡은 미완성된 것으로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인 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어진다면 청정부의 하수인인 金可珍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된다.

당시에 출판된 거의 대부분의 소설에서 관리 비판의 내용이 적든 많은 간에 꼭 있었다.⁵³⁾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부패한 관리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覺民》에 게재된 소설과 희곡 역시 부패한 관리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관리가 되려고 하는 자, 꿈 속에서 관리가 되어 혁명가들을 처단하는 자, 처음에는 애국주의 정신으로 국가를 위해 반제활동을 벌이다가 청정부에 의해 포섭이 되어 舉人으로 발탁이 되어 혁명가들을 회유하려는 자 등의 인물 창조를 통해 청말 관리를 비판하고 있지만, 작품들이 대부분 단편이며 미완성된 작품도 여럿 있어 이 시기 다른 소설과 희곡에 비해 그 비판의 폭과 깊이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

2.4 서양에 대한 인식

1890년대 말에 중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한층 잘 알게 되면서 일본의 메이지

52) “你看一般志士，心醉共和，願存光復，眞眞一身是膽，賽過趙雲一流。但依俺想起來，他們只會上來，不顧退後，也不過是飛蛾撲火，自投網羅罷了。”，吳魂 著，〈迷魂陣傳奇〉，《覺民》(제 7기)，《南社叢書·〈覺民〉月刊整理重排本》，143쪽.

53) 陳平原，〈二十世紀中國小說史(第一卷)〉(1897-1916年)，232쪽 참조.

유신 개혁가들로부터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표트르 1세까지 광범위한 미래의 모델을 갖게 되었다. 개혁잡지와 교훈적 역사서들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왔는데 주로 과거의 여러 서양 사상가들을 칭송하고 폴란드, 터키, 인도처럼 분할되고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정치적으로 예속된 국가들을 거울삼아 중국에 경종을 울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⁵⁴⁾ 그리고 이 당시 혁명파들 중 다수가 외국 유학경험이 있었고, 서양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다. 그래서 ‘서양을 향해 배우자’라는 풍조가 양무파, 개량파를 거쳐 혁명파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鄒容의 《革命軍》에서 혁명을 고취하면서도 ‘서양을 향해 배우자’라고 크게 호소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희곡 <俠客傳奇>와 희곡 <人天恨傳奇>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희곡 <俠客傳奇>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예로 들어 미국이 자유의 획득을 통해 문명을 꽃피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종이 이전처럼 땡땡땡 소리를 내네. 보라 13주에 두루 심어진 찬란한 꽃을. 천신만고의 고통 정말 탄식할 만하고, 8년간의 혈전으로 개화되었네. 주먹으로 금소를 내리치고, 왜도난마하여, 노예근성 모두 없애버리고, 문명의 길로 나아갔네.”⁵⁶⁾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는 취생몽사해 있는 상황이다.

“아국의 인심을 두루 살피니, 취생몽사한 채 거기서 잠자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이는 관리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며, 몇 항의 헌법조항을 만들어서는 관리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어떤 이는 아주 꼼꼼히 탐구한 경전의 뜻과 책론으로 공명을 얻으려고 꿈꾸고 있다. 어떤 이는 하늘이 무너지면 거인이 지탱할 것이라며 자신하고는 관계없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운명이 이런 거니,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한다.”⁵⁷⁾

54)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같은 책, 276쪽 참조.

55) 費月良, <近代中國“向西方學習”思想之演進>, 《浙江學刊》, 1989년 제4기, 154쪽 참조.

56) “自由鐘鏗鏗發聲如昨, 看十三州植遍了燦爛鮮花, 千尋苦海真堪嗟, 八年血戰方開化. 拳鬪黃鶴, 刀斬亂麻, 奴根割盡, 文明路賒.”, 大雄 지, <俠客傳奇>, 같은 책, 61쪽.

57) “觀我國人心, 猶是醉生夢死, 在那裏睡覺. 有的要運動官場, 做幾條憲法章程, 去拍他的馬屁; 有的揣摩合式的經義策論, 夢想功名; 有的說天翻下來, 自有長人頂; 有的說氣數如此, 夫

이것은 지금 중국에서 관리가 되려고 하는 자, 공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 세상사에 무관심한 자, 운명론자 등이 내우외환에 빠져 있는 위기의 중국을 구제하려고 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든가 전혀 시국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 상황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희곡 <俠客傳奇>와 희곡 <人天恨傳奇>에서 중국에서도 워싱턴이나 크롬웰, 마치니의 활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의 심혈과 기백으로 해나가리라. 설마 워싱턴, 크롬웰의 활약을 다시 볼 수 없단 말인가? 설마 다른 나라 사람이 한 경천동지의 일을 우리 중국인이 숨이 간 땀겨려 생기가 없어 해내지 못한단 말인가?”⁵⁸⁾

“전국에 과연 마치니 같이 혈기 넘치는 일등 사내가 있는가?”⁵⁹⁾

이러한 서양의 예를 통해 희곡 <俠客傳奇>는 조국과 민족에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부르짖고 있다.

“나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전민족을 위해 희생할 것을 맹세한다. 그래야지 남의 구국책임을 다하는 셈이다.”⁶⁰⁾

이처럼 서양의 예를 든 것은 작가가 청조의 쇠약과 낙후를 보고 서양의 민족 민주혁명으로써 모범을 삼고 사상계몽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⁶¹⁾ 이렇게 서양의 예를 통해 중국의 변화를 꾀하는 경우는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보이는 흔한 예이기도 하다. 특히 워싱턴을 숭양했던 孫文의 경우 1894년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고 합중정부를 건립하자.”⁶²⁾를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復何言.”, 大雄 著, <俠客傳奇>, 같은 책, 61쪽.

58) “拿俺的心血魄力做下去, 難道華盛頓、克林威爾的大活劇就不能再見麼? 難道他國人做出驚天動地的事, 我中國人就奄奄無生氣, 便做不出來麼?”, 大雄 著, <俠客傳奇>, 같은 책, 61쪽.

59) “舉國中果有血性男兒瑪志尼一流人嗎?”, 秋士 著, <人天恨傳奇>, 같은 책, 180쪽.

60) “俺誓要獻身祖國, 供全民族的犧牲, 方算得盡男兒一分救國責任哩!”, 大雄 著, <俠客傳奇>, 같은 책, 61쪽.

61) 梁淑安, <南社戲劇誌>,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년, 84쪽.

미국식의 합중정부를 건립하자는 의미는 워싱턴의 민족민주혁명을 거울로 삼겠다는 의미가 있다. 이로부터 당시 중국의 변화를 바라던 사람들은 혁명파나 개량파를 막론하고 서양을 거울로 삼으려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들은 嚴復을 통해 중국에 소개된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논리에 근거하여 “당당한 7척의 내가 적자생존하려면, 오랑캐의 머리를 참해야지, 발달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네.”⁶³⁾ 라며 반만혁명을 외치고 있다.

열강의 침탈,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한 망국의 위기에서 당시 중국인들은 이러한 진화론에 경도되었으며, 멸망하지 않기 위해, ‘保種’, ‘保教’, ‘保國’의 민족 의식을 이끌어내었고, 나아가 민족주의사상을 강화하게 된다.⁶⁴⁾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夷夏之辨’으로 핵심을 삼는 중국의 전통적 민족주의와는 달랐다. 비록 반만을 외치고 있고, 대한족주의가 남아있었지만, 이 시기의 민족주의의 주요 방향점은 봉건군주전제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⁵⁾

조국과 민족에 헌신을 한 서양의 혁명가들을 거울로 삼고, 서양의 진화론을 받아들여 반만 혁명을 추구하는 서양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서양열강의 중국 분할에 대한 반제경향은 사실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조국의 강성을 갈망하고 나아가 제국주의를 쫓아버리려는 의중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⁶⁾

62) “驅除韃虜，恢復中華，創立合衆政府”，孫文，〈檀香山興中會盟書〉，〈孫中山全集〉(제1권)，中華書局，1981년，20쪽.

63) “自命堂堂七尺要爭存，斬樓蘭腦筋發達深深印.”，秋士 著，〈人天恨傳奇〉，같은 책，180쪽.

64) 王爾敏，〈中國近代思想史論〉，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3년，84쪽 참조.

65) 陳衛平，〈世紀末的新世界觀-中國近代進化論思潮〉，〈中國近代社會思潮〉，高瑞泉 主編，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6년，77쪽 참조.

66) 方正耀，같은 책，135쪽 참조.

3. 나오는 말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소설과 희곡이 민중을 계몽하여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의 대표적 주자인 梁啓超는 1902년 <論小說與群治之關係>란 글에서 소설계 혁명을 제창하면서 소설과 희곡의 세 가지 사회작용을 언급하였다.⁶⁷⁾ 즉 정치사상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사회풍기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민지가 개화하도록 이끌 수 있는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⁶⁸⁾ 梁啓超 이후에 소설계혁명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개량파, 혁명파를 막론하고 모두 梁啓超의 이러한 관점에 찬동하고 이 바탕 위에서 논지를 전개해 간다. 그러나 그들 주장의 출발점은 소설과 희곡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설과 희곡을 계몽과 구국의 도구로서의 가능성에 염두를 둔 것이다. 즉 그들은 이러한 대중화된 형식으로 자신들 이념의 전파 매개로 삼겠다는 의지로 말미암아 소설과 희곡형식의 추상적인 외피만을 중시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覺民》에 게재된 소설과 희곡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들 소설과 희곡에서 보이는 현실인식, 즉 시국위기에 대한 견해와 계몽, 반만 혁명, 관리 비판, 서양에 대한 인식 등은 시대적 의의를 획득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梁啓超의 “설부 같으나 설부가 아니요, 稗史 같으나 稗史가 아니요, 논저 같으나 논저가 아니요, 어떤 종류의 문체인지 모르겠다.”⁶⁹⁾라는 말처럼,

67) 이 글에서 말하는 ‘小說’은 ‘戲曲’을 포함한 개념이다.

68) 梁啓超, <論小說與群治之關係>, 《新小說》, 제1권제1기, 1902년, 徐中玉 주편, 《中國近代文學大系·文學理論集二》, 上海書店, 1995년, 303-308쪽 所收에 의함.

69) “似說部非說部, 似稗史非稗史, 似論著非論著, 不知成何種文體.”, 梁啓超, <《新中國未來記》緒言>, 《新小說》 第一號, 1902년. 여기에서는 陳平原·夏曉虹 편,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第一卷)》, 北京大學出版社, 1997년, 55쪽 所收에 의함. 梁啓超의 이 말은 자신의 소설 《新中國未來記》에 대한 평이지만, 필자가 본 논문의 텍스트로 삼은 소설과 희곡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문학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문학적 묘사보다는 이 시기 다수의 소설과 희곡처럼 설교에 치우쳐 있어, 작가 자신의 사상을 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극 갈등과 인물성격의 창조도 결핍되어 있다.⁷⁰⁾ 또한 이 시기의 많은 작가들이 예술적 수양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개혁 열정에만 기대어 작품을 창작하다보니, 시작은 하지만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⁷¹⁾ 《覺民》에 게재된 소설과 희곡 역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 있어 이 시기의 다양한 담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 그들의 글쓰기가 전통시기 글쓰기의 패러다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비록 내우외환에 휩싸인 근대 중국을 혁명하여 부강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근대적 기획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文以載道’의 전통이 여전히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覺民》에 게재된 소설과 희곡의 현실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시 혁명파가 소설과 희곡을 사상계몽의 도구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고, 南社 성원들의 南社 창립 이전 성향을 일정 부분 규명할 수 있었다.

< 參考文獻 >

- 廣東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室·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中華民國史研究室·中山大學歷史系孫中山研究室 合編, 《孫中山全集》(제1권), 北京: 中華書局, 1981年.
 李華興·吳嘉勛 編, 《梁啟超選集》,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4年.
 陳芳, 《晚清古典戲劇的歷史意義》, 臺灣: 學生書局, 1988年.
 陳平原, 《二十世紀中國小說史·第一卷(1897-1916)》,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9年.
 方正耀, 《晚清小說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1年.

70) 阿英 저, 전인초 역, 《중국근대소설사》, 152쪽 참조. 梁淑安, 《南社戲劇誌》, 87쪽 참조.

71) 方正耀, 같은 책, 362쪽 참조.

- 郭延禮, 《中國近代文學發展史2》,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5年.
- 徐中玉 主編, 《中國近代文學大系·文學理論集二》, 上海: 上海書店, 1995年.
- 高旭·高燮·高增 原編, 高鈺·谷文娟 정리, 《南社叢書·〈覺民〉月刊整理重排本》,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6年.
- 高瑞泉 主編, 《中國近代社會思潮》,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年.
- 歐陽健, 《晚清小說史》,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7年.
- 陳平原·夏曉虹 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第一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年.
- 劉納, 《嬗變-辛亥革命時期至五四時期的中國文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年.
- 王爾敏, 《中國近代思想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年.
- 梁淑安, 《南社戲劇誌》,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年.
- 趙慎修, <論晚清的文學變革>, 《文學遺產》, 1989年 第2期.
- 賈月良, <近代中國“向西方學習”思想之演進>, 《浙江學刊》, 1989年 第4期.
- 阿英 著, 전인초 譯, 《중국근대소설사》, 서울: 정음사, 1987년.
- 구양근, 《청말 건책소설의 史實關係 연구》,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88년.
- 마루야마 마츠유키 著, 천성림 譯, 《중국 근대의 혁명사상》, 서울: 예전사, 1989년.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 중국사 VI》, 서울: 지식산업사, 1992년.
-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중국을 찾아서 1》, 서울: 이산, 1998년.
- 이마무라 히토시 지음, 이수정 옮김, 《근대성의 구조》, 서울: 민음사, 1999년.
- 베네딕트 앤더슨 著, 윤형숙 譯, 《상상의 공동체》, 파주: 나남출판, 2002년.
- 魯迅 著, 조관희 譯, 《중국소설사》, 서울: 소명, 2004년.
- 서경호, 《중국소설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년.
- 리찌허우 지음, 임춘성 옮김, 《중국근대사상사론》, 파주: 한길사, 2005년.
- 강진아,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파주: 창비, 2009년.
- 문정진, 《清末의 '新小說'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년 6월.
- 이보경, 《20세기 초 중국의 소설이론 재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년 12월.
- 천진, 《20세기 초 중국의 智·德 담론과 '文'의 경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년 12월.
- 위행복, <청말 혁명과 소설론의 근대성 탐색>, 《중국소설논총》 제13집, 2001년.
- 이영옥, <청말 만주족 지위하락과 반만정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9집, 2008년.

< 中文提要 >

1903년 11월 남社創始人之一高旭與高增、高燮發刊了雜誌《覺民》。《覺民》反對清王朝腐敗統治、反對列強侵略、主張社會改革、主張排滿革命、鼓吹民主。本論文以《覺民》的小說、戲曲爲研究對象，探討了反映在《覺民》的小說、戲曲裏面對當時現實的認識。

本論文的研究方向主要從四個方面進行。一是對時局動蕩的危機意識與啓蒙。當時中國雖被列強瓜分，可清朝統治者與官僚不管國家安危，只知個人貪圖安逸。對此，作者譴責了他們的腐敗與無能，要通過啓蒙與自己犧牲，挽救國家與民族。二是排滿革命的主張。作者們認爲清朝只有媚外，便不能反帝，因此，主張排滿革命、打倒清朝。三是對清末官僚的譴責。清末時期譴責官僚的文學作品出現得很多。這是因爲當時官僚的腐敗太嚴重、太頻繁，所以許多人都關心它。當時有人謀官之道，要通過不正的方法，當官。這種人假使當了官，籠絡革命人士，甚至緝拿革命人士，妨碍排滿革命活動。作者們揭露了這種官僚只求富貴功名，不顧國家安危。四是對西方的認識。當時“向西方學習”風潮也影響到革命派。作者們借鑑華盛頓、克林威爾、瑪志尼等人士的民族民主革命事跡，謀求國家的富強，又在進化論的影響下，根據優勝劣敗與適者生存，主張了排滿革命。《覺民》的小說、戲曲雖有時代的意義，從藝術性來說，難免粗陋。但我們從對《覺民》的小說、戲曲的考察，可知當時革命派把小說與戲曲作爲一種思想啓蒙的工具，進一步作爲政治鬭爭的工具。

關鍵詞：南社，《覺民》，現實認識，啓蒙，排滿革命，革命派.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3.30	2011.4.28	2011.5.10	2011.5.20	2011.5.31